

2015 슬로푸드국제컨퍼런스

밥상 나눔과 평화 - 밥을 나누어 평화를 실현하다

평화로운 밥상에 마주 앉기 위하여

정성현

1. 밥

-밥은 생명입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땅입니다.

밥 한그릇의 이치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萬事知 食一碗)

밥은 우주와 인간의 협력작업의 산물입니다.

밥 한그릇에 담긴 것은 햇빛, 땅, 물, 바람, 온갖 벌레와 미생물 그리고 인간의 적절하고 정성된 노동이 합쳐진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생명이라 합니다.

밥은 이처럼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하늘이라고 합니다.(食爲天)

밥은 땅에서 나오고 땅은 모든 사물의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땅이라 합니다.(食是地)

밥은 생명이며 하늘이며 땅이기에 다음 세가지 조건을 두루 갖추어야 제대로 된 밥입니다.

첫째, 안전해야 합니다.

밥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해로운 요소 즉 독이 없는 생명의 밥이어야 합니다.(질적 안전성)

둘째, 넉넉해야 합니다.

밥이 모자라면 개인과 사회는 피폐해지고 세상에는 도둑이 들끓습니다.

식량을 자급자족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입니다.(양적 안정성)

셋째, 고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밥을 빼앗거나 훔치는것은 모든 사회적 불의의 원천입니다.

정당한 노동으로 밥을 먹어야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밥은 공동체가 차려줘서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사회정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밥 사정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지구촌의 밥 사정은 어떠합니까?

화학농법, 각종 보존제, 첨가제 등으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늘, 땅, 물이 죽어가고 가뭄, 홍수, 지하수부족, 폭염, 사막화 등으로 식량 생산량은 정체 하거나 줄어드는데 지구 인구는 특히 가난한 나라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의한 권력과 독점적 자본이 가난한 이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밥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역 또는 경쟁과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밥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애써야 할 것은 우리 사회와 지구촌 공동체를 정의롭게 재편성하면서 식량자급 계획을 자기 지역 형편에 맞게 10년이고 20년이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며 생명의 밥상을 차려야 합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평화의 들판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한다.”

우리는 이를 생명과 평화의 밥상 공동체라 합니다.

2. 위기의 현장-밥, 식량, 생명의 위기

-제일 큰 걱정은 계속되는 가뭄입니다.

충청남도 8개 시, 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과나무 240그루를 심었는데 15그루만 죽고 다 살았는데 올해는 50그루를 심어 1그루만 살았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빼놓고는 전 국토가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가뭄이 과거의 가뭄처럼 지구의 운동에 따른 주기적인 가뭄이 아니라 주기적인 가뭄에 인간의 과도한 생산-소비-폐기활동에 결과한 기후변화형 가뭄이 겹쳤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의 중서부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방, 중국의 북부지방 가뭄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가뭄, 지하수부족, 저수량 부족등은 세계적 식량생산의 차질은 물론 사막화의 진전으로 지구 생태계의 혼란과 파괴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의 적도에 가장 가까운 곳에 “키리바시”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10만명 조금넘고 넓이는 700 km²가 채 안됩니다.

이 나라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 히말라야의 만년설등이 녹아내려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는 바람에 모든 국민이 조국을 떠나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키리바시의 해발고도가 2m 남짓이니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진 것은 다른 나라 특히 강대국과 신흥공업국들의 과도한 화석연료 때문인데 왜 피해는 화석연료를 거의 태우지 않는 적도상의 섬나라들이 덤터기를 써야 하는가?

투발루등 서태평양의 모든 섬나라가 겪는 비극입니다.

불행중 그나마 약간 다행인 것은 키리바시 국민들이 현명하고 줯대가 있어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 환경난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존엄의 이주”라는 계획을 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10여년 전부터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더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현상을 “군집붕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년전 토종벌이 76% 폐죽음을 했습니다.(정부발표)

토종벌 관련 민간 단체의 발표는 97%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등 세계 각지에서는 대략 30~50% 정도의 꿀벌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미국은 살충제와 이동전화 전자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상의 꿀벌이 절멸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5년 안에 인류도 절멸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구 생태계의 위기와 물, 불, 식량등 3대 생명자원의 위기는 점차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대량소비 에너지 체제와 이에 기반한 대량생산-소비-폐기의 거대문명과 이를 촉진하고 확대시키는 자본의 독점구조!

이 3자가 서로 촉진자가 되고 결과물이 되어 사회는 소위 “무한경쟁”의 악순환에 휘말려 공동체는 분해되고 1:99 사회라는 극단의 불평등, 불공정이 심화되고 생태계 파괴, 생물종의 절멸, 사막화, 해수면상승...등 못생명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명 이상의 인류가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극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비 1조 6000억 달러의 20%만 써도 가난하고 목마른 이들의 처지를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 8000억 달러를 20%만 줄여도 지구 온난화를 결정적으로 완화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가 고기 소비량을 50%만 줄여도 지구 온난화 정도를 9%가량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생명과 평화의 밥상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하여

첫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존엄한 생명은 다른 생명 없이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우주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구생명은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아끼고 모시고 살리는것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사회의 민주주의는 전체 생명 사회의 민주주의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느긋하고 자연에 가까운 생활이 마음의 평화, 세상의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나 스스로 평화롭지 않으면 다른 이들과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자연에 가깝

고 친근한 일상이“함께 사는 생명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셋째, 세상을 바꾸야 합니다.

자본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여 보다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장만능주의도, 권력개입 제일주의도 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대화, 소통, 협의로 국가와 시장의 양 극단적 경향을 민주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독점을 공존으로, 집중을 분산으로, 집권을 분권으로, 차단을 순환으로, 불공정을 정의로 바꾸내는 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수준과 뜻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 문명을 바꾸야 합니다.

대량생산, 소비, 폐기하는 거대한 불(火)의 문명, 거대한 쓰레기 문명은 적정 생산, 소비, 최소 폐기의 작은 문명으로 대전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절약하고 다시쓰고, 광물문명을 생물문명으로 바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하는 세상과 문명은 “공존과 순환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생명과 살림의 문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편협한 인종주의와 국가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는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쟁과 소비지향의 지, 덕, 체 교육은 협동과 생명지향의 체, 덕, 지 교육으로 시급히 결정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과 식품산업은 생명산업의 원칙과 운영원리에 맞게 거대기업을 지양하고 “가족경영과 협동기업”이 중심이 되게 하는 국제적,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긴요합니다.

우리가 가고자하는 “생명과 평화의 밥상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길을 “스스로, 함께, 꾸준히” 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은 촉박하고 조건은 불리합니다.

언제나 생명살림을 바탕에 두고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로 변혁하려는 일상적인 생활실천운동과 교육활동이 우리를 함께 사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